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Adolescents' Parents'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on Parents and Children's Relationship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박 상 빈\*

교 수 전 귀 연\*\*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 연구소

강 사 배 문 조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Park, Sang-Bin

Professor : Jeon, Gwee-Yeon

Kyungpook National Univ./Center for Beautiful Aging

Lecturer : Bae, Moon-Jo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and children's relationship.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expectation of the parents' role, role performance by adolescents' perception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rvey was taken by 758 adolescents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from Daegu.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Scheffé test for post hoc,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1) Role expecta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ade, gender, birth order, father's level of education, father's job, mother's age, and household economy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Role performa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ade, gender, father's age, parents' level of education, father's job, and household economy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2)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and children's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

▲주요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부모 역할기대(the expectation of the parents' role), 부모 역할수행(role performance by adolescents' perception), 부모-자녀관계(parents and children's relationship)

---

\* 주 저 자 : 박상빈 (E-mail : ppada82@hanmail.net)

\*\* 교신저자 : 전귀연 (E-mail : gyjeon@knu.ac.kr )

## I. 서론

인간은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습득하고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해지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역할이란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특징적 행동의 양식을 의미하며(임연신·현운강, 2002) 이러한 부모역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대적 특성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부모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의했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 구조적인 변동과 여성 사회진출의 가속화에 따라 그 기능도 변화하게 되었다(김정숙, 2007). 동시에, 갈수록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의 사회 활동으로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감안해 볼 때 부모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점에 와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 불리는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불안감, 감정의 동요, 반항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며 최근에 이르러 가족의 결속력 약화와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김정숙, 2007).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부모는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단순한 양육자 역할 이외에도 그들의 동일시 대상으로서, 또한 상담자와 조언자, 협조자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아버지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 간의 차이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박순덕, 2005)나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 정도와 기대에 관한 연구(김보금·송순, 2002),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 수행 평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및 미래 아버지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강유진, 2005)등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과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지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역할기대)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역할수행)이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김보금·송순, 2002; 박순덕, 2005; 이성대, 1998). 이들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를 역할수행보다 더 높게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제 역할수행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자녀의 관점과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부모의 역할은 오히려 부모-자녀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서툰 역할수행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부모의 역할기능저하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김진이, 2009) 청소년 부모의 훈육방식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적대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김재엽 등, 2010)을 미루어볼 때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선행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김혜수 등(2007)은 부모-자녀관계를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방향적 의사소통으로 그 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오경자와 문경주(2006)는 부모의 지지와 스트레스를 부모-자녀관계로 보고 있다. 또한 황미진 등(2008)은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부모-자녀관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연구마다 부모-자녀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 고마움, 존경, 만족감 등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는 긍정적 지각과 거리감, 원망, 불만족 등의 비호의적 감정을 가지는 부정적 지각으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기영락·임성택, 2010),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오경자·문경주, 2006),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김정희·문혁준, 2006; 박지현, 2009; 박현숙·김이영, 2009; 임연신·현운강, 2002), 비행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본 연구(정진경 등, 2005)들이 있다. 그러나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이 부모-자녀관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조사한 김윤경(1993)의 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녀의 평가가 아버지와의 심리적 거리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여 부모-자녀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김정임, 1995; 최상숙, 1993)들이 있다. 이처럼 그간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지각의 가능성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나 존경, 신뢰, 고마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지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여지 또한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역할 기대와 수행의 수준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수행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수행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고찰

###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

일반적으로 역할기대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은 역할 담당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개념이며, 이것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어느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말한다(이성대, 1998). 특히, 청소년기는 성적성숙이 수반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확대로 인해 심리적 동요와 혼란이 발생하는 시기(이성대, 1998)이므로 바른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정서적·사회적 성숙, 그리고 부모나 다른 성인과의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위해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기대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순덕(2005)은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를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상상적, 의무적, 미래지향적이며 규범적인 속성을 지닌 구체적 행위에 대한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영역에 대하여 Canfield(1995)는 7가지 하위요인(자녀와의 대화, 양육자의 일관성, 자녀양육 역할, 남편의 역할, 부양자 역할, 자녀 이해도, 정신적인 자세)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대화,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자녀교육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보금과 송순(2002)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 역할, 가치전달의 역할, 통솔조화의 역할, 애정적 역할, 지적능력개발의 역할로 구분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기대를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 지원, 능력개발, 정서적 안정, 가치관 형성, 자녀의 모범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아버지 역할기대에 대한 지각을 연구하기도 하였다(이성대, 1998). 특히, 나중완(199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기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으며, 부모 역할기대를 인성기대(활동성, 사려성, 사교성),

부모-자녀 간 기대(적극적 기대, 소극적 기대, 보호 기대, 발전을 위한 기대, 자율기대), 가정전반기대(조화기대, 협동기대), 기타기대(바라는 행동, 바라지 않는 행동)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이 가사 및 자녀 양육 부분까지 확대되어 감에 따라 현대의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동료적 역할을 하고, 자녀 세대의 관점에서 신뢰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애정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개성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학업과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대하는 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대, 1998).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들의 대화자나 상담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로 자신들을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이해해주기를, 공부를 격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녀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상으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어머니, 공평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 조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어머니,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 건강하고 명랑·쾌활한 어머니로 나타났다(나중완, 1990; 안영자, 1988).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통해서도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녀의 학년, 성별,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가정의 경제사정 또는 부모의 수입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들이 있다.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부모 역할기대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김보금과 송순(200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아버지의 전반적 역할에 대해서 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순덕(200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역할기대에 대해서는 학년에 따른 지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없지만 아버지의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년이 어머니의 역할기대의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나중완(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기대에 대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자녀 간 기대를 더 높게 지각했고, 김보금과 송순(2002)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기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학생이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 역할기대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종완(1990)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역할기대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역할기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금과 송순(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은 전체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할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박순덕(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에서 나종완(1990)은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역할기대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보금·송순, 2002; 박순덕, 2005).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제 역할기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보금·송순, 2002) 역할기대와 부모의 학력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직업과 관련하여서 나종완(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부모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외 연구들에서는 부모 역할기대 지각에 부모의 직업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김보금·송순, 2002; 박순덕, 2005).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보다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일 때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박순덕(2005)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사무직인 경우 역할기대가 가장 낮았고, 자영상공업의 경우 역할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사정에 있어서 역할기대의 지각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김보금·송순, 2002; 박순덕, 2005),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월수입에 따라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김보금·송순, 2002). 그러나 나종완(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수입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청소년이므로 가정의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여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 역할의 영역을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역할기대가 각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수행

일반적으로 역할수행이라 함은 역할 담당자가 규범과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으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손유기, 1998).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박순덕, 2005)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자녀가 기대하는 행동이나 규범과의 일치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실제적인 아버지의 행동으로 정의하여 연구하였으며, 김희철(1988), 이성대(199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아버지의 역할수행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어떤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요구된 역할기대에 반해서 역할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회 체계는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조직적으로 해체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한광희, 2010). 특히,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역할을 기대하고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은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수행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김정숙(2007)은 과도기적 발달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영향을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적응에 있어서 몇 가지 영역은 어머니의 역할수행을 넘어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오늘날 기혼여성의 취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비중이 달라지면서 전통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어머니의 역할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지각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통해서도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녀의 학년, 성별,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 가정의 경제사정 또는 부모의 수입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들이 있다.

김용주(2009)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라은숙(2005)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이성대(1998)의 연구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의 성별은 부모 역할수행의 지각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용주(200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의 역할수행 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김윤경(199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 성별은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오미경, 1990; 허선자, 1992)도 있어,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수행의 차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 역할수행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김용주, 2009),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에는 어머니의 연령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김보금과 송순(2002)은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이 높음을 나타낸 반면, 김윤경(1993)과 박순덕(2005)의 연구는 연령이 역할수행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나타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은 역할수행 지각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김윤경(1993)의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김보금과 송순(2002), 김용주(2009), 박순덕(2005), 손미리(1996)의 연구에서도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역할수행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에 어머니 학력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용주,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에서 전반적인 역할수행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하위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이경희, 1990). 이를 통해 부모 학력에 따라 역할수행의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직업에 있어서 아버지의 직업이 대체적으로 역할수행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금·송순, 2002; 김용주, 2009; 김윤경, 1993; 손미리, 1996; 윤서영, 1998). 연구 중에는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에 어머니 취업유무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지 여성의 수의 증가로 취업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하여 역할수행의 지각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역할수행 지각과 관련하여서 가정의 경제사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경제사정은 아버지 역할수행을 더 높게 지각하기도 하였고, 월수입이 많은 경우 아버지 역할수행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기도 하였다(김보금·송순, 2002; 김윤경, 1993; 김용주, 2009; 손미리,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수행이 각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과 부모-자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박순덕, 2005).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태내에서 시작되어 가정을 통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고 특히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강효숙, 2003).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로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행동이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소년기 자녀와 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전귀연·최보가, 1993).

유아기와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박옥임, 1997).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Rubinet et al., 2006),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이유리, 2009).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뜻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 고마움, 존경, 만족감 등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는 긍정적 지각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감, 원망, 불만족 등의 비호의적 감정을 가지는 부정적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여러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은 부모를 신뢰하고 개방적이 되어 심리적 성장발달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고(남정홍, 2001)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과 친밀도의 관계에서 부-자녀 간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높을 때 친밀도도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지효숙, 2007).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나 존경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문수경, 2004).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자녀 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유리, 2009). 아버지가 지지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들은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며,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가 수용-자율적인 양육태도인 경우 부모에 대해 존경, 고마움, 친밀감의

태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수경, 200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역할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바, 이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아버지와의 심리적 거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난 연구(김윤경, 1993)와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여 부모-자녀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연구(김정임, 1995; 최상숙, 1993)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이 부모-자녀관계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대구 남녀 중학생 1, 2학년과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897부 배포하여 885부가 회수되었고, 부실기계를 제외하고 총 758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알기 위한 문항으로 학년,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경제사정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2) 부모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 척도

부모의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Canfield (1995)의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를 재구성한 박순덕(2005)의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 및 수행 검사 척도 문항과 Gilvert와 Hansons의 부모역할 인지 척도를 재구성한 김윤경(1993)의 척도 문항과 이항순과 유안진(1996)의 척도를 재구성한 김정숙(2007)의 척도 문항을 연구자가 본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의 Likert형 방식을 적용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지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하위영역은 요인분석을 거쳐 사회 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단체생활에서의 협동정신을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교칙이나 교통규칙 등 일반적인 사회규칙이나 사회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등),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시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란다. 등),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가족들의 생활에 있어 불편이 없을 만큼 수입을 벌어들여주시길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758)

변 인	구 분	빈도	%	변 인	구 분	빈도	%
성 별	남자	394	52	학 년	중학생	378	49.9
	여자	364	48		고등학생	380	50.1
출생순위	외동	32	4.2	가정경제사정	부유한 편	160	21.1
	첫째	314	41.4		보통이다	531	70.1
	중간	58	7.7		가난한 편	67	8.8
	막내	354	46.7				
아버지 연령	45세 이하	371	48.9	어머니 연령	43세 이하	447	59.0
	46세 이상	387	51.1		44세 이상	311	41.1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1	5.4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55	7.3
	고졸	329	43.4		고졸	411	54.2
	대졸이상	388	51.2		대졸이상	292	38.5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109	14.1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54	7.1
	사무직	212	28.0		사무직	117	15.4
	자영·상공업	339	44.7		자영·상공업	132	17.4
	생산·판매직	78	10.3		생산·판매직	103	13.6
	무직	20	2.6		무직·주부	352	46.4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가족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등),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연극, 영화, 음악회, 미술관 등의 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나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등),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나의 숙제나 준비물 등 학과진도에 좀 더 관심이 있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내가 배우고 있는 교과목을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 등),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형제, 자매간에 능력을 비교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형제, 자매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등),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예: 나는 아버지가 내가 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진지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사춘기의 변화 및 성도덕에 관하여 말씀 해 주시길 바란다. 등)로 구분하였고, 각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문항에서는 “아버지”를 “어머니”로 변환하였으며, 역할수행에 관한 문항에서는 “~주시기를 바란다”를 “~주신다”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아버지 역할기대의 하위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94, .88, .81, .78, .80, .80, .75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역할기대의 하위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93, .89, .81, .79, .78, .80, .75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94, .88, .80, .85, .77, .82, .7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역할수행의 하위변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94, .86, .76, .84, .74, .83, .77로 나타났다.

### 3) 부모-자녀관계 척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란 부모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가 높거나 부모와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거나 부모에 대해 가지는 존경, 고마움, 만족감과 같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의 지각을 뜻하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란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거나 부모에 대해 가지는 갈등, 원망, 불만족과 같은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의 지각을 뜻한다.

본 연구의 척도와 관련하여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에 대해 Watson과 Tellegen(1985)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보았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채선미와 이영순(2011), 한태숙과 황혜정(2010) 역시 두 개의 척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의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자녀 간의 관계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귀연(1993)이 제작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척도 문항과 Thompson과 Walker가 개발한 척도를 임미영(2002)이 재구성한 척도를 연구자가 본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각각 41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형 방식을 적용하여 긍정적 지각

을 측정하는 항목(예: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 통하는 것을 느낀다. 등)은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적 지각을 측정하는 항목(예: 아버지(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다. 등)은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97, .97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96, .97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MANOVA와 Scheffé의 사후 검증법,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역할기대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기대 수준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기대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하위변인에 대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과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대(1998)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진로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가장 낮게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대학입시나 진로선택에 대해 중학생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에게서 그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기대에 대해서는 그 역할기대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이나 학과 공부와 관련된

&lt;표 2&gt;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기대 수준의 차이 (N=758)

	Wilks's $\lambda$	(N)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M(SD)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93***	중학생(378)	3.68(.81)	3.70(.78)	3.87(.73)	3.85(.78)	3.16(.92)	3.96(.89)	3.03(.95)
		고등학생(380)	3.68(.83)	3.66(.83)	3.96(.74)	4.01(.82)	2.88(.87)	4.19(.70)	2.83(.90)
		F	.006	.516	3.155	7.343**	19.303***	.004	8.780**
성별	.87***	남(394)	3.57(.84)	3.50(.84)	3.77(.78)	3.72(.82)	2.89(.93)	3.74(.94)	2.92(.93)
		여(364)	3.79(.78)	3.87(.72)	4.07(.65)	4.16(.73)	3.17(.85)	4.20(.83)	2.93(.94)
		F	13.799***	43.095***	32.612***	61.826***	18.453***	51.820***	.006
출생 순위	.91*	외동(32)	3.78(1.06)	3.75(.94)	3.94(.83)	4.24(.93)a	3.27(1.11)	-	3.21(1.17)
		첫째(314)	3.73(.78)	3.76(.77)	3.97(.71)	3.99(.77)ab	3.06(.87)	4.00(.88)ab	2.92(.95)
		중간(58)	3.84(.71)	3.92(.62)	3.98(.65)	4.17(.76)ab	3.23(.78)	4.22(.92)a	3.02(.65)
		막내(354)	3.60(.84)	3.56(.84)	3.85(.77)	3.81(.81)b	2.92(.92)	3.98(.89)b	2.89(.93)
		F	2.467	5.318**	1.577	6.475***	3.511*	3.029*	1.329
아버지 연령	.99	45세이하(371)	3.74(.83)	3.75(.80)	3.94(.76)	3.96(.80)	3.11(.91)	4.02(.92)	3.04(.96)
		46세이상(387)	3.62(.81)	3.62(.81)	3.89(.72)	3.90(.81)	2.93(.89)	3.90(.91)	2.82(.90)
		F	3.924*	5.254*	.878	.999	7.404**	3.127	9.952**
아버지 학력	.96*	중졸이하(41)	3.64(.78)	3.76(.78)	3.98(.65)	3.90(.81)	2.82(.85)	3.98(.84)	2.80(.72)
		고졸(329)	3.62(.79)	3.64(.80)	3.95(.70)	3.84(.80)	2.99(.90)	3.88(.90)	2.89(.93)
		대졸이상(388)	3.73(.84)	3.71(.81)	3.88(.77)	4.01(.81)	3.06(.91)	4.02(.93)	2.97(.95)
		F	1.579	.736	.948	3.944*	1.599	2.009	1.081
아버지 직업	.92*	전문·관리직(109)	3.81(.78)	3.73(.83)	3.87(.78)	4.02(.77)a	3.13(.92)	3.97(.88)	3.05(.87)
		사무직(212)	3.58(.80)	3.66(.83)	3.86(.75)	3.95(.81)a	2.99(.86)	3.94(.93)	2.91(.87)
		자영업(339)	3.73(.84)	3.67(.80)	3.93(.73)	3.95(.80)a	2.99(.94)	3.98(.93)	2.92(.99)
		생산·판매직(78)	3.62(.75)	3.76(.69)	3.98(.67)	3.81(.76)ab	3.12(.82)	3.89(.86)	2.85(.87)
		무직(20)	3.39(.93)	3.51(1.05)	4.20(.74)	3.49(1.06)b	2.90(1.09)	4.00(1.06)	2.87(1.13)
		F	2.661*	.588	1.361	2.412*	.912	.169	.656
가정의 경제 사정	.96*	부유한편(160)	3.70(.83)a	3.67(.88)	3.90(.81)	3.92(.84)	3.07(.93)	3.94(1.00)	2.97(.94)
		보통(531)	3.70(.81)a	3.69(.79)	3.90(.72)	3.95(.79)	3.04(.91)	3.97(.89)	2.95(.92)
		가난한편(67)	3.42(.82)b	3.62(.71)	4.11(.66)	3.84(.81)	2.76(.81)	3.92(.93)	2.68(.99)
		F	3.788*	.216	2.640	.592	3.004	.148	2.582

\*p&lt;.05, \*\*p&lt;.01, \*\*\*p&lt;.001

a, b, c: Scheffé 사후검증

자녀교육에 대해 더 낮게 지각한다는 김용주(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지각이 더 높았는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다는 김영희(1992)의 연구를 토대로 학교 교과시간에 체계적으로 배운 성지식과 학교 밖에서 얻은 성지식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의 성교육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버지 역할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청소년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성숙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아버지와 청소년 여학생 간에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예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의 차이에서는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기대와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기대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기대에 대해서는 외동과 막내에게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기대에 대해서는 중간과 막내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는 대체로 첫째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고 높은 수준의 포부를 가지게 되지만 이에 비해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를 양육해 본 사전 경험에 의해 좀 더 객관적으로 되며 그들의 문제에 대한 반응을 덜 보이기도 한다(엄경아, 1992). 첫째보다 낮은 부모의 기대 수준으로 인해 둘째는 편애를 느낄 수도 있고, 위 형제가 동생을 돌보고 동생의 모델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순위가 중간인 자녀는 형제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에 애정표현의 역할과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 있어서 첫째나 막내에 비해 역할의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의 차이는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과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기대에 대해서는 무직과 다른 직종(생산·판매직 제외)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에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난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다른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과 직업, 경제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생산·판매직의 경우 그 역할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는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들의 학력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른 아버지 역할기대의 차이에서 청소년들은 '가난한 편이다'라고 응답할수록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의 역할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현안으로 자녀의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에 대한 교육에까지 아버지의 역할이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역시 그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기대 수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기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하위변인에 대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에 따른 어머니 역할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역할기대와 마찬가지로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과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기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이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중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것을 나타나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구분 없이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 역할기대의 차이를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전반적 역할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자녀 간 기대가 더 높다는 나종완(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 역할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과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 대한 기대는 중간과 막내 간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역할기대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모든 요인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43세 이하인 학생들의 어머니 역할기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세대차가 적고, 청소년의 가치관과 관점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기대 수준의 차이 (N=758)

	Wilks's λ	(N)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M(SD)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94***	중학생(378)	3.72(.77)	3.75(.78)	3.78(.75)	3.89(.77)	3.22(.93)	3.96(.87)	3.13(.96)
		고등학생(380)	3.66(.84)	3.69(.84)	3.82(.75)	4.02(.83)	2.93(.86)	3.97(.94)	2.92(.87)
		F	1.199	1.091	.464	4.496*	20.100***	.014	10.246**
성별	.88***	남(394)	3.58(.83)	3.53(.84)	3.66(.80)	3.73(.82)	2.94(.93)	3.75(.93)	2.92(.93)
		여(364)	3.81(.76)	3.92(.73)	3.95(.66)	4.20(.71)	3.22(.85)	4.20(.81)	3.14(.91)
		F	15.569***	46.009***	29.375***	72.812***	19.113***	51.474***	10.418**
출생 순위	.92***	외동(32)	3.75(1.02)	3.75(.94)	3.92(.83)	4.18(.94)	3.23(1.11)	-	3.30(1.18)
		첫째(314)	3.73(.78)	3.79(.79)	3.84(.72)	4.00(.79)	3.13(.87)	4.01(.88)ab	3.01(.92)
		중간(58)	3.85(.70)	3.97(.70)	3.93(.62)	4.16(.76)	3.25(.82)	4.25(.86)a	3.18(.77)
		막내(354)	3.62(.81)	3.62(.82)	3.74(.78)	3.86(.80)	2.98(.92)	3.93(.83)b	2.99(.92)
F	2.034	4.610**	2.035	4.097**	2.668*	3.460*	1.746		
어머니 연령	.98*	43세이하(447)	3.76(.78)	3.78(.81)	3.83(.74)	3.99(.79)	3.17(.92)	4.03(.88)	3.11(.94)
		44세이상(311)	3.58(.83)	3.64(.81)	3.76(.77)	3.91(.83)	2.94(.87)	3.87(.92)	2.91(.88)
		F	9.758**	5.329*	1.789	1.751	11.825**	6.343*	8.941**
어머니 학력	.99	중졸이하(55)	3.57(.76)	3.67(.74)	3.73(.64)	3.88(.79)	2.89(.83)	3.89(.86)	2.83(.74)
		고졸(411)	3.66(.80)	3.71(.80)	3.79(.74)	3.94(.78)	3.10(.91)	3.93(.91)	3.03(.92)
		대졸이상(292)	3.75(.81)	3.75(.84)	3.84(.79)	3.99(.83)	3.08(.92)	4.03(.90)	3.06(.95)
		F	1.781	.398	.688	.641	1.309	1.380	.1422
어머니 직업	.97	전문·관리직(54)	3.85(.84)	3.72(.90)	3.82(.88)	4.05(.82)	3.03(.97)	3.90(1.05)	3.04(1.00)
		사무직(117)	3.65(.82)	3.74(.85)	3.84(.74)	4.00(.83)	3.07(.88)	4.10(.85)	2.92(.96)
		자영업(132)	3.74(.88)	3.67(.86)	3.86(.75)	4.03(.79)	3.09(.94)	4.04(.92)	3.03(.99)
		생산·판매직(103)	3.75(.79)	3.75(.73)	3.81(.77)	3.97(.82)	3.16(.93)	3.95(.89)	3.12(.93)
		무직/주부(352)	3.64(.76)	3.72(.79)	3.76(.74)	3.89(.80)	3.05(.88)	3.90(.89)	3.03(.86)
		F	1.206	.171	.526	1.032	.353	1.344	.673
가정의 경제 사정	.98	부유한편(160)	3.70(.84)	3.71(.88)	3.83(.79)	3.92(.87)	3.12(.96)	3.94(.98)	3.03(.92)
		보통(531)	3.72(.80)	3.74(.79)	3.80(.74)	3.97(.79)	3.09(.89)	3.97(.88)	3.04(.92)
		가난한편(67)	3.47(.74)	3.61(.76)	3.78(.73)	3.89(.79)	2.83(.85)	3.98(.89)	2.91(.95)
		F	2.872	.660	.160	.465	2.805	.079	.655

\*p<.05, \*\*p<.01, \*\*\*p<.001  
a, b, c: Scheffé 사후검증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 역할수행

1)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 수준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하위변인에 대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의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요인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전체적인 역할수행 지각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김용주(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대인관계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적게 지각하고 있음이 이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과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에 차이를 나타낸 이희자와 김경원(2000), 정은주(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 중에서도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성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청소년기 여학생은 이성인 아버지에게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 그 역할수행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낮게 지각함을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영역에서 45세 이하의 집단이 아버지 역할수행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한다는 김용주(2009), 조선휘(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이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수행에 대하여 아버지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과 다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수행에 대하여 아버지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과 대졸이상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김보금과 송순(2002)의 연구와 김용주(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교육과 자녀양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수행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인 집단과 생산·판매직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인 집단과 다른 직종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서는 무직과 자영업과 생산·판매직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무직일 때보다는 직업이 있을 때,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역할수행을 높게 지각한다는 김용주(2009), 윤서영(1998), Volling과 Belsky(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 대한 수행지각은 '부유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보통이다' '가난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세 집단 간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부유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을 가장 높게 지각했다.

그리고 그 외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수행에서 '부유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가난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부유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더 높은 역할수행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버지의 경제적 측면에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이 다른 역할수행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도 작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수행이 미흡할 때에는 교육 및 지도의 역할이나 애정적 역할에서도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가정의 경제사정은 연구대상이 청소년이라 정확한 소득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으며, 지극히 주관적인 청소년의 지각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사정과 관련하여 보다 세분화된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 수준의 차이 (N=758)

	Wilks's λ	(N)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가족관계 유지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M(SD)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92***	중학생(378)	3.67(.83)	3.88(.81)	3.67(.82)	3.46(.95)	3.32(.91)	3.58(.97)	3.15(.98)
		고등학생(380)	3.52(.83)	3.73(.85)	3.58(.79)	3.21(.99)	2.92(.86)	3.52(1.03)	2.78(.90)
		F	6.040*	6.379*	2.126	13.367***	40.436*	.875	29.093***
성별	.96***	남(394)	3.65(.85)	3.83(.86)	3.66(.80)	3.44(.96)	3.22(.94)	3.59(.99)	3.13(.96)
		여(364)	3.54(.82)	3.78(.81)	3.59(.80)	3.22(.99)	3.01(.87)	3.50(1.01)	2.78(.92)
		F	3.240	.758	1.679	10.226**	9.333**	1.316	25.151***
출생 순위	.96	외동(32)	3.72(.91)	3.87(.88)	3.69(.90)	3.45(1.19)	3.40(1.08)	-	3.07(1.29)
		첫째(314)	3.65(.82)	3.86(.83)	3.67(.79)	3.39(.98)	3.14(.86)	3.61(1.02)	2.98(.94)
		중간(58)	3.70(.71)	3.89(.70)	3.76(.64)	3.47(.97)	3.11(.91)	3.62(.93)	2.84(.87)
		막내(354)	3.51(.86)	3.74(.86)	3.56(.83)	3.25(.96)	3.07(.93)	3.49(.98)	2.95(.96)
		F	2.195	1.455	1.865	1.834	1.367	.997	.489
아버지 연령	.98*	45세이하(371)	3.68(.84)	3.87(.85)	3.65(.81)	3.40(1.01)	3.22(.87)	3.60(1.04)	3.07(.96)
		46세이상(387)	3.51(.83)	3.74(.82)	3.60(.80)	3.27(.96)	3.02(.94)	3.50(.96)	2.86(.94)
		F	7.805**	4.497*	.955	2.992	9.036**	1.851	8.938**
아버지 학력	.96*	중졸이하(41)	3.43(.79)	3.59(.91)	3.35(.84)a	3.21(.99)	2.77(.85)a	3.36(1.04)	2.77(.73)
		고졸(329)	3.49(.80)	3.75(.81)	3.52(.79)b	3.22(.97)	3.00(.87)ab	3.46(1.00)	2.90(.94)
		대졸이상(388)	3.70(.86)	3.88(.84)	3.74(.80)b	3.45(.98)	3.25(.93)b	3.64(.99)	3.03(.99)
		F	6.716**	3.617*	9.767***	5.266**	10.055***	3.904*	2.576
아버지 직업	.93*	전문관리직(109)	3.75(.84)a	3.94(.84)a	3.72(.83)a	3.55(1.00)a	3.25(.96)a	3.69(.98)a	3.09(.95)
		사무직(212)	3.60(.80)a	3.81(.83)a	3.72(.76)a	3.37(.95)a	3.18(.88)a	3.50(.96)a	2.99(.97)
		자영업(339)	3.59(.84)a	3.81(.81)a	3.61(.79)a	3.32(.96)a	3.07(.92)ab	3.54(1.03)ab	2.96(.96)
		생산·판매직(78)	3.51(.85)ab	3.72(.84)ab	3.47(.79)a	3.19(1.02)a	3.08(.83)ab	3.66(.96)ab	2.82(.89)
		무직(20)	3.12(.94)b	3.27(1.09)b	2.88(.93)b	2.61(1.04)b	2.60(.93)b	3.02(.96)b	2.60(.97)
		F	2.760*	2.944*	6.369***	4.566**	2.716*	2.401*	1.749
가정 경제 사정	.87***	부유한편(160)	3.85(.84)a	4.05(.83)a	3.97(.76)a	3.68(.95)a	3.34(.92)a	3.85(1.01)a	3.15(1.03)a
		보통(531)	3.57(.82)b	3.79(.82)b	3.61(.76)b	3.31(.96)b	3.10(.90)a	3.50(.96)b	2.96(.93)a
		가난한편(67)	3.16(.76)c	3.35(.74)c	2.88(.70)c	2.69(.90)c	2.71(.83)b	3.18(1.09)c	2.52(.85)b
		F	17.458***	17.469***	50.079***	26.441***	12.063***	12.835***	10.627***

\*p<.05, \*\*p<.01, \*\*\*p<.001  
a, b, c: Scheffé 사후검증

2)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 수준의 차이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하위변인에 대하여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의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요인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어머니 역할수행을 더 높게 지각했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이며, 어머니의 영향력이 고등학생보다는 많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의 차이를 보면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두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역할수행을 더 높게 지각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 심리적 성숙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표 5>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 수준의 차이 (N=758)

	wilks λ	(N)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예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M(SD)	M(SD)	M(SD)	M(SD)	M(SD)	M(SD)	M(SD)
학년	.95***	중학생(378)	3.71(.82)	3.93(.76)	3.85(.71)	3.56(.94)	3.43(.91)	3.60(.98)	3.30(.96)
		고등학생(380)	3.56(.77)	3.84(.74)	3.81(.70)	3.33(.95)	3.11(.80)	3.54(.99)	2.99(.90)
		F	6.847**	2.637	.766	11.299**	26.807***	.604	20.349***
성별	.98*	남(394)	3.68(.81)	3.92(.77)	3.84(.73)	3.54(.91)	3.35(.88)	3.63(.96)	3.17(.95)
		여(364)	3.58(.78)	3.85(.74)	3.82(.68)	3.34(.98)	3.18(.84)	3.50(1.01)	3.11(.94)
		F	2.663	1.514	.284	8.576**	7.265**	3.539	.935
출생 순위	.98	외동(32)	3.79(.94)	3.84(.91)	3.84(.82)	3.54(1.15)	3.53(1.13)	-	3.25(1.26)
		첫째(314)	3.68(.78)	3.93(.75)	3.87(.70)	3.52(.94)	3.31(.83)	3.63(.99)	3.19(.92)
		중간(58)	3.71(.72)	3.97(.63)	3.90(.59)	3.52(.95)	3.28(.82)	3.61(1.01)	3.11(.88)
		막내(354)	3.56(.81)	3.84(.76)	3.79(.71)	3.35(.93)	3.21(.88)	3.51(.97)	3.10(.95)
		F	2.071	1.175	.911	1.963	1.685	.890	.714
어머니 연령	.98	43세이하(447)	3.71(.81)	3.95(.75)	3.87(.71)	3.52(.97)	3.35(.85)	3.61(1.01)	3.22(.94)
		44세이상(311)	3.51(.76)	3.80(.75)	3.77(.69)	3.32(.91)	3.16(.88)	3.51(.96)	3.02(.93)
		F	11.682	6.641	3.990	8.296	8.407	1.976	8.296
어머니 학력	.96*	중졸이하(55)	3.39(.78)a	3.69(.73)	3.60(.64)a	3.17(.93)a	2.89(.82)a	3.38(1.03)	3.03(.88)
		고졸(411)	3.61(.78)ab	3.88(.74)	3.82(.67)b	3.42(.95)ab	3.21(.85)b	3.54(1.00)	3.14(.95)
		대졸이상(292)	3.70(.81)b	3.93(.78)	3.89(.75)b	3.52(.94)b	3.43(.86)b	3.64(.96)	3.17(.95)
		F	3.854*	2.317	3.846*	3.300*	11.477***	1.828	.487
어머니 직업	.95	전문·관리직(54)	3.78(.86)	4.06(.80)	3.94(.81)	3.57(1.01)	3.52(.88)	3.66(1.06)	3.24(.90)
		사무직(117)	3.60(.82)	3.87(.80)	3.87(.67)	3.48(.95)	3.26(.82)	3.56(.99)	2.96(.97)
		자영업(132)	3.59(.81)	3.86(.81)	3.90(.67)	3.42(.99)	3.20(.89)	3.65(1.00)	3.12(1.02)
		생산·판매직(103)	3.55(.84)	3.87(.70)	3.79(.70)	3.33(.99)	3.17(.94)	3.60(1.01)	3.12(.99)
		무직/주부(352)	3.66(.77)	3.88(.73)	3.78(.71)	3.45(.91)	3.29(.85)	3.52(.96)	3.20(.89)
		F	.873	.742	1.244	.697	1.760	.617	1.646
가정의 경제 사정	.92***	부유한편(160)	3.88(.80)a	4.12(.78)a	4.08(.76)a	3.76(.90)a	3.50(.86)a	3.87(.98)a	3.35(1.00)a
		보통(531)	3.61(.78)b	3.85(.74)b	3.81(.66)b	3.41(.94)b	3.25(.86)a	3.51(.95)b	3.13(.93)a
		가난한편(67)	3.23(.73)c	3.62(.66)c	3.41(.67)c	2.99(.90)c	2.92(.76)b	3.27(1.15)b	2.75(.79)b
		F	17.429***	13.047***	24.019***	17.684***	11.598***	11.764***	10.013***

\*p<.05, \*\*p<.01, \*\*\*p<.001  
a, b, c: Scheffé 사후검증

의존도가 남학생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초기 청소년 단계의 남학생은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과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수행지각은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과 대졸이상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대졸이상인 집단은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어머니

역할수행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과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의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졸이하의 집단이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해 가장 낮게 지각했다.

이에 대해 고학력일수록 월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에 더 높은 관심과 교육열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수행에 있어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양일(200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어머니가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주고, 상담자나 고민의 해결자가 되어 줄 수 있으므로 자녀는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해 높게 지각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의 차이를 보면,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수행지각은 '부유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보통이다', '가난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세 집단 간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부유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어머니 역할수행을 가장 높게 지각했다.

또한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부유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 다른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부유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역할수행 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가난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현안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있어서 시간적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 자녀 교육이나 지도의 역할수행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은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에 대한 수행에 대해 청소년들이 낮게 지각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부모 역할기대 및 부모 역할수행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73이하로 나타났으며, 허용오차(Tolerance)가 .31~.681로 모든 값이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1.469~3.221로 10보다 작은 값을 보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변인을 사용하였다.

1)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기대가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기대가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기대 변인 중에서 자녀의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31$ )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23$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31$ ),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beta=.10$ ),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beta=.10$ )이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긍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기대 변인은 자녀의 긍정적 지각

<표 6>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기대가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긍정적 지각		부정적 지각	
	B	$\beta$	B	$\beta$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34	.31***	-.16	-.15**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26	.23***	-.25	-.22***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37	-.31	.26	.21***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08	-.07	.04	.04
학업 및 생활 지도역할	.10	.10*	-.10	-.10*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03	.03	-.00	-.00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09	.10*	.03	.03
F	33.350***		9.911***	
R <sup>2</sup>	.237		.085	

\*p<.05 \*\*p<.01 \*\*\*p<.001

을 2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기대 변인 중에서 자녀의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15$ ),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22$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21$ ),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beta=-.10$ )이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기대 변인은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 먼저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은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 발달과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역할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의 가치관 교육이나 생활 지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사회전통이나 가치관, 생활철학을 전달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청소년 자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허순홍(199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은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숙현, 2006; Crouter & Manke, 1994) 자상하고 친구같이 대화하는 아버지가 이상적 아버지상이라는 결과(이성희·한은주, 1998; 이숙현, 1995)와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자녀들은 정서적 표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은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아버지-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지원과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박현주, 2001)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학업 지도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교육지원에 대한 역할을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은 기대가 낮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역할기대가 역할수행보다 더 높게 나타나 청소년 자녀들은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김보금과 송순(2002)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잘 할수록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 역할기대치가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 지각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대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아버지로서의 영향력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아버지가 역할수행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자녀가 갈등이나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등 자녀의 부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지원이 충족되지 않을수록 그 결핍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이러한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기대가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기대가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다.

<표 7>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기대가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긍정적 지각		부정적 지각	
	B	$\beta$	B	$\beta$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35	.36***	-.17	-.17**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23	.23***	-.25	-.24***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23	-.23***	.19	.17***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10	-.10*	.02	.02
학업 및 생활 지도역할	.05	.06	-.03	-.04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06	.07	-.03	-.03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03	.04	.07	.07
F	32.262***		9.108***	
R <sup>2</sup>	.231		.078	

\*p<.05, \*\*p<.01,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역할기대 변인 중에서 자녀의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0.36$ ),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0.23$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0.23$ ),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beta=0.10$ )이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기대 변인은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2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기대 변인 중에서 자녀의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0.17$ ),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0.24$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0.17$ )이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기대 변인은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 먼저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가족 간 애정표현에 대한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기

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할 역할에 대한 당연한 기대치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아버지 역할기대와 마찬가지로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성이해 및 진로지도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기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는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며, 취미나 특기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치관을 고려해주시기를 기대하므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자세로 자녀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수행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역할수행 변인 중에서 자녀의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0.19$ )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0.44$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0.09$ ),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beta=0.16$ )이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표 8>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긍정적 지각		부정적 지각	
	B	$\beta$	B	$\beta$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21	.19***	-.04	-.03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47	.44***	-.48	-.43***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10	.09**	-.19	-.16***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14	.16***	-.11	-.11*
학업 및 생활 지도역할	.05	.05	.09	.09*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02	.02	-.10	-.10*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03	-.04	.13	.13**
F	201.150***		52.835***	
R <sup>2</sup>	.652		.358	

\*p<.05, \*\*p<.01, \*\*\*p<.001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수행이 높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수행 변인은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6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수행 변인 중에서 자녀의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43$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16$ ),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beta=-.11$ ),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beta=.09$ ),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beta=-.10$ ),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beta=.13$ )이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수행 변인은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3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 먼저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수행의 지각이 높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의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가족 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므로(Denham et al., 1994; Dunn et al., 1991)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어린 애정표현과 부부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청소년의 안정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이라 하겠다.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은 그 수행의 지각이 높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청소년들은 성장과정 중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에 대해서 성실함, 책임감, 정직을 가장 큰 영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강진희, 1999) 이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역할모델로 기능할 때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수행의 지각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의 학업과 성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통제 등과 같은 지나친 관심 및 지도는 청소년 시기에 과도한 압력으로 느껴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원망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박현주(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에 대해서도 역할수행의 지각이 높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교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강진희(1999)와 김윤경(199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신체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춘기의 신체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관심이나 성도덕 및 성교육의 지도는 자녀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이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이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역할수행 변인 중에서 자녀의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24$ )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40$ ),

<표 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역할수행이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긍정적 지각		부정적 지각	
	B	$\beta$	B	$\beta$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역할	.23	.24***	-.16	-.15**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41	.40***	-.38	-.34***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11	.10**	-.14	-.12**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09	.11**	-.02	-.02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02	.02	.10	.10*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08	.10***	-.13	-.15***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05	-.06	.14	.15***
F	165.418***		42.580***	
R <sup>2</sup>	.607		.284	

\*p<.05 \*\*p<.01 \*\*\*p<.001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10$ ),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beta=.11$ ),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beta=.10$ )이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수행이 높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수행 변인은 자녀의 긍정적 지각을 60.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수행 변인 중에서 자녀의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beta=-.15$ )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beta=-.34$ ),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beta=-.12$ ),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beta=.10$ ),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beta=-.15$ ),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beta=.15$ )이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에 대한 수행이 낮을수록,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수행이 낮을수록,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이 낮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수행 변인은 자녀의 부정적 지각을 2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등 전반적인 어머니 역할영역들이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양육자의 역할 외에도 아버지가 담당하였던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확장되어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특히 가정관리자의 역할도 확장되어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다른 역할들과는 반대로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역할수행 지각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업 성적에 대한 관심이나 기초생활에 대한 지도의 수행이 높을 경우 청소년들은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많이 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정양일, 2001)와 같이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결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에는 어머니의 지나친 신체발달에 대한 관심과 성교육은 오히려 자녀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아버지 역할기대는 청소년의 학년, 성별,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아버지 역할기대 수준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역할기대 수준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학년,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문제 2>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수행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학년, 성별, 아버지 연령, 아버지 직업,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학년, 성별, 어머니 학력, 가정의 경제사정이 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문제 3>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역할기대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살펴본 결과, 먼저 아버지 역할기대에 대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과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은 긍정적 지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은 긍정적 지각에,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을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할기대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의 역할수행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역할기대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지만, 이것을 토대로 근거를 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Maslow의 동기이론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대에 대해서 수행의 결핍(deficit) 때문에 생기는 기대가 있는 반면, 성장(growth)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유발되는 기대도 존재한다고 한다(나종완, 1990). 따라서 역할기대가 높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수행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강화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역할기대로도 해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문제 4>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역할수행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는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수행이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수행은 긍정적 지각에,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은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은 역할의 수행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 자녀의 학업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체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춘기의 신체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관심이나 성도덕 및 성교육의 지도는 자녀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예측하는 바, 보다 지혜롭고 솔직한 대화법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해 사회규범 및 가치관 교육 역할, 가족 간 애정표현 역할,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유지 역할, 적성이해와 진로지도 역할,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공정한 형제관계 유지 역할,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 등 전반적 어머니 역할영역들이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 및 생활 지도 역할과 신체발달 및 성교육자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역할수행 지각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업 성적에 대한 관심이나 기초생활에 대한 지도의 수행이 높을 경우 청소년들은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에는 어머니의 지나친 신체발달에 대한 관심과 성교육은 오히려 자녀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는 진로문제나 대학입시와 같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생활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어머니의 성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개방적인 대화와 수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을 사용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지만,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변인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을 청소년의 자기보고식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가족원들의 지각이나 반응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지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측정을 부모나 다른 가족원들의 지각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결과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을 각각 구분하여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역할기대에 따라 실제 역할수행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관련 변인들을 검토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유진(2005). **남자 청소년의 아버지 역할 수행 평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 및 미래 아버지 역할기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진희(1999). **군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효숙(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 존중감 및 또래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영락·임성택(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직업교육학회, 29(1)**, 63-80.

김보금·송순(2002).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 수행 정도와 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2)**, 17-33.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주(2009).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1993).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심리적 거리에**

-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남석인·최선아(2010). 아동기 부모 훈육 방식이 청소년의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 자녀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회, 15(3)**, 121-147.
- 김정숙(2007). 아버지 역할수행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임(1995). 아버지 역할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김진이(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에 따른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한국가족관계학회, 13(4)**, 49-73.
- 김혜수·배성만·현명호(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12(2)**, 383-393.
- 김희철(1988).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중완(1990).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은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경(2004).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순덕(2005).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 간 차이와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옥임(1997).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I). **과학과 교육, 5**, 101-113.
- 박지현(2009).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및 심리적 건강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김이영(2009).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8(3)**, 297-304.
- 박현주(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미리(1996).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유기(1998).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자(1988). 자녀들이 기대하는 어머니 역할. **논문집, 7(2)**, 97-113.
- 엄경아(1992).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일 연구: 형제 수,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시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문경주(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 25(1)**, 59-76.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 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서영(1998).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대(1998). 아버지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에 관한 조사 연구 - 대구 시내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29.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상호 작용: 대기업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 이숙현(2006). 생산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 11(1)**, 133-150.
- 이유리(2009). 아버지의 원 가족 분위기가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순·유안진(1996). 남자 대학생의 친부에 대한 친밀도와 부성역할 지각 및 미래 자기 부성역할 지식간의 상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15-225.
- 이희자·김경원(200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임미영(2002). 가족친밀감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연신·현은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 40(11)**, 23-37.
-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양일(2001). 어머니의 역할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 남부 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1990).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 모, 아동의 지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오경자·문경주·조아라(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한국심리학회지, 24(4)**,

755-770.

조선화(1997).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효숙(2007).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친밀도 및 사회성과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선미 · 이영순(2011). 기초연구: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정서, 자아 강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5(1)**, 1-16.

최상숙(1993).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순홍(1991). 부의 자녀 양육관, 양육태도,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광희(2010). 부부역할수행과 생활만족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태숙 · 황혜정(2010).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30(5)**, 99-119.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미진 · 정혜정 · 이은아(2008).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103-117.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Crouter, A. C., & Manke, B. (1994). The Changing American Workplace: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17-124.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 Psychology*, **30(6)**, 298-936.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Rubin, K. H., &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ed.)*, (3), 571-645.

Volling, B, L.,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61-474.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접수일 : 2011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9월 20일